

“가동중단 2·3년 한빛 3·4호기 폐쇄해야”

광주비상회의 “보수해도 위험”
지역민 불신·불안감 확산
5호기서도 균열·공극 발생

한빛 원자력발전소 6기 가운데 부실 시공의 대명사로 지적돼 온 한빛 4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 3년이 지난데다 한빛 3호기도 가동 중단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한빛 5호기마저 문제점이 발견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빛 4호기는 가동을 중지(2017년 5월 18일)한 지 만 3년이 됐으며, 한빛 3호기도 740일(2018년 5월 11일부터) 동안 멈춰 서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한빛 5호기 제13차 계획예방 정비과정에서는 원자로 헤드에서 미세균열 흔적이 발견되고, 거기에 공극까지 발견된 상태이다.

◇한빛3·4호기 과연 안전인가? = 19일 ‘핵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이하 광주회의)는 논평을 내고 “보수해도 소용 없는 위험한 한빛 3·4호기는 당장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회의는 “현재 3·4호기에 진행중인 구조건전성 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하고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및 철근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주회의는 한빛원전 측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결과가 불만족(불량) 이더라도 결국 구조적 보장을 거쳐 재가동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주회의는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은 현재까지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를 넘는 264개”라며 “통상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두께는 1m20~1m67cm인데 4호기 주중기배관 관통부 주변에서 깊이 1m57cm 공극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광주회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격납건물 철관부식, 공극 등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지만 재가동을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문제를 제공한 설계·시공 당사자들이 진단하고 보강하는 형식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객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5호기도 문제? =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10부터 제13차 계획예방정비를 진행중인 한빛 5호기에 미세 균열과 공극이 발생했다. 이에 지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정비중 원자로 84개 헤드 관통관 중 한 곳에서 10cm크기의 붕산수 누수 흔적이 발견돼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미세균열이 발견됐다.

한빛 원전측은 “관통관의 기존 용접 재질은 인코넬 600 재질로 이는 고온·고압에서 부식과 균열에 취약하다”며 “발견된 미세 균열을 인코넬 690 재질로 표면을 덧씌워 용접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원자로를 덮고 있는 격납 건물 내부철관 배면 주중기 배관 하부에서도 공극이 발견됐다. 공극은 폭 75cm, 높이 41cm, 깊이 35cm 크기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원전연료·증기발생기 교체, 격납건물 내부철관 검사 등을 통해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완도 생일도에 국내 최대 생일 케이크

높이 5.8m 3단 원통형
촛불 조형물 야간 불 밝혀

완도군 생일도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생일 케이크(사진)를 볼 수 있다. 완도군은 생일도의 대표 상징물인 생일케이크를 서성항 여객선 부두 물양장에 설치, 생일도만의 특별한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생일케이크 조형물 규모는 높이 5.8m, 폭 2.7m의 3단 원형이며 전복 등 각종 해산물과 과일 조형물로 장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케이크 상단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은 야간에 불을 밝혀 축하 이벤트의 묘미를 더한다.

케이크에 설치된 스위치를 누르면 감미로운 한글 버전 축하 노래를 비롯해 경쾌한 리듬 버전, 외국어 버전까지 다양한 생일 축하 음악이 흘러나온다.



서성항 대합실 옥상에 설치된 케이크 조형물은 낮과 해가 뜨면 불이 켜져 보수가 어렵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절거렸다.

2016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생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담장 너머 활짝 핀 장미꽃 광주와 전남지방에 간간히 비가 내린 19일, 코로나19 여파로 출입이 통제된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정미원 담장 너머로 시민들이 활짝 핀 장미꽃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사법 적폐 청산 촉구

전교조 광주지부·시민단체

광주·전남지역 교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취소와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19일 광주지방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12월9일 전원합의

체에 회부한 데 이어 20일 오후 2시로 잡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참석 단체들은 “전교조는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30년간 매진해온 단체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가해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확립하고, 국회는 독소항을 담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맹목적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여대, 애완동물보전학과 등 3개 학과 신설

광주여자대학교가 현대 생활의 트렌드에 맞춰 항공보안경호학과와 애완동물보전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AI융합학과를 설립했다.

광주여대는 항공보안경호학과(정원 20명)와 애완동물보전학과(25명), AI융합학과(25명)를 신설해 2021학년도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

이중 애완동물보전학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최초로 신설된 학과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동물보전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생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국가자격증인 동물보전사뿐만 아니라 각종 반려동물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4년제 여자대학 가운데 최초로 신설된 항공보안경호학과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보안인력을 양성, 기존 여성 승무원 양성의 최고 학과인 항공서비스학과와 더불어 항공 분야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AI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신설한 AI융합학과는 AI트랙과 VR콘텐츠디자인트랙으로 운영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대입 진학지원 프로그램 ‘빛고을 플랫폼’ 가동

22개 일반고 대상 진행

컨설팅위원들 방문 진학지도

광주교육청이 일반고 대입 진학지원 프로그램인 ‘빛고을 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빛고을 플랫폼’은 비아고와 동신고를 시

작으로 22개 일반고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0여명의 컨설팅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과 학생부(수업, 평가, 기록), 진학지도 등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지향점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빛고을 플랫폼은 학교가 대입제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별 최적화된 진로진학지도 로드맵 작

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진학지도 지원체제 구축에 도움을 준다. 특히 올해는 2015 개정교육과정 1세대가 대입을 준비하는 첫 해이고 대입제도 개편안,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 대입 환경의 많은 변화가 적용되는 시점이라 의미가 더 크다.

컨설팅위원은 현재 ‘MBC 공부가 머

니?’ 프로그램 패널로 활동하는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등 진학전문 교원, 전·현직 교장, 교육전문가,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외에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등 40여명으로 구성되고, 오는 7월까지 광주 지역 22개 일반고를 방문한다.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대입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현 상황에서 지난해 92.58%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빛고을 플랫폼이 학교의 고민, 학생과 학부모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